

# ‘한수寒水에 살다’ 특별전시회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는 ‘한수에 살다’ 특별전시회 개막식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3시에 제천시 의림지역 사박물관에서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하여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안태영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섭 제천문화원장 등 각 기관장과 후손으로서 권희천 화천군중중 이사장, 권중욱 화천군중중 상무이사, 권중환 종손, 권희석 화천군중중 감사, 권병호 연암공중중 회장, 권건중 대중회 사무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축사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한수재 권상하 선생을 기리는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수재 권상하 선생은 제천의 정신적 자산이다. 한수재 권상하 선생의 학문세계와 선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 제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조명하여 제천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수재 권상하 선생은 서경덕, 율곡 이이,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주기론의 학통을 이어받았고 우암의 수제자이다. 또 권상하 선생 동생의 아들이 옥소 권섭이다. 옥소 선생의 그림과 시 등 주옥같은 작품이 많이 있음에도 조선의 문인으로서 전국적 지명도는 아직 약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재 권상하 선생의 학통은 조선말까지 의병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큰 그림으로 한수재 권상하 선생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의림지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참석하신 안동권씨 문중 어른들에게 고맙고 또 감사하다. 그동안 유물관리를 잘 해주셔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은 “한수에 살다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안동권씨 문중에 고맙다. 제천시의회는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동권씨 시중공파 화천군중중 권재중(權在重, 38세) 고문이 후손을 대표하여 축사를 했다. 지난 7월 수필 부문에서 제13회 한국문학백년상을 수상한 수필가이기도 한 권재중 고문은 기호학파의 학맥과 당시 주요 철학 논쟁이었던 호락논쟁을 꿰뚫으며 한수재의 사상과 철학과 역사까지 아우르는 축사를 했다. 또한 한수재의 삶과 철학이 오늘날 참



한수재 권상하 초상화

단기술의 발달로 자칫하면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도 있는 국민들에게 인간 본연의 도리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가르침이자 지침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개막식은 작았지만 울림은 컸다. 다음은 축사 전문이다.

“깊어가는 이 가을, 의리의 고장 제천, 그것도 우리나라 벼농사의 역사를 상징하는 유서 깊은 의림지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17·8세기 당대(當代) 최고 성리학자인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 할아버지의 생애를 기리는 ‘한수에 살다’라는 특별전시회의 서막을 여는 이 자리에 후손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먼저 이 행사를 기획·전시해 주신 제천시 이상천 시장님, 한심비 주무관님과 이를 지원해 주신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 자리에 가까이 동참해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문순공(文純公) 한수재께서는 기발이승 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한 율곡 이이를 조종(祖宗)으로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로 이어내려 온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하셨습니다.



시중공파 화천군중중 후손들

다. 사색당쟁이 극심하던 조선 숙종 때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다가 마지막 내린 좌의정마저 사양함으로써 ‘사림(士林)’으로서의 지조를 끝내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스승인 우암 선생이 다하지 못한 사업을 성취하시며, 이곳 제천 황강에서 강론에 전념하여 이른바 ‘강론 8학사’ 등 많은 제자를 길러 내셨습니다.

특히 이채로운 것은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인성과 물성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이다. 이를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고도 하는데,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남당 한원진의 주장에 호서(충청도)지역 학자가 주로 호응하였기 때문에 이를 호론(湖論)이라 하고, 인성과 물성은 같다는 외암 이간의 주장에 낙하(서울) 학자가 많이 동조하였기 때문에 이를 낙론(洛論)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국유교철학자는 이 ‘호락논쟁’이야말로 성리학의 본고장인 중국보다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한 놀라운 학문적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마침내 이 땅에 성리학의 꽃을 피웠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수재께서는 한 생애를 통하여 참다운 제자로서 스승을 공경한 의리, 스승으로서의 그윽한 제자 사랑, 끝내 지켜내신 사림으로서의 지조와 양심, 당대(當代) 유학을 대표하는 유종(儒宗)으로서의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한수재께서 남기신 글은 성리학이 녹아있는 시(詩), 서(書), 소(疏), 통문(通文), 수의(收議), 제문(祭文), 태극도설 등 무려 1,250편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端宗)과 폐비가 된 중종비 신씨(愼氏)를 다시 복위시키는 민감한 일에 앞장 서신 글도 있습니다.

이 많은 글을 남당 한원진, 병계 윤봉구 등 제자들이 정리하고, 증손인 산수현(山水軒) 권진응(權震應) 할아버지께서 1761(영조37년) 경삼감영에서 『한수재집』 35권 15책을 출간하여 오늘날 조선 후기 유학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990

년, 한국민족문화추진회가 그 문화사적의의와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역 한수재집』 6권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갖춘 로봇까지 등장하여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칫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기계와 달리 이성과 양심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윤리·도덕적 가치에 따라 인간 본연의 도리를 다하는 가운데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스승은 스승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그 본분을 다하여야 인간으로서의 자아정체성(自我正體性)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야 시대적 발전과 변화의 참된 의미(意義)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



권재중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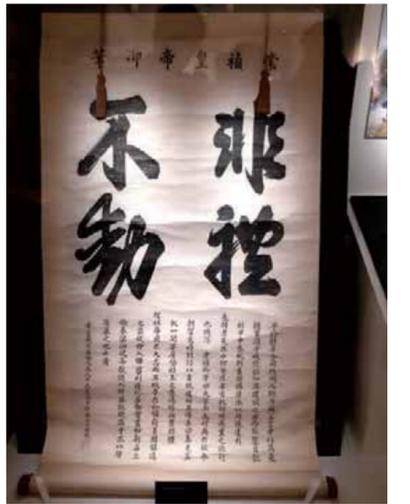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제천시가 오늘, 300년 전 이곳 한수에 살다 가신 한수재의 한 생애를 재조명하는 이 행사야말로 시의적절하면서도 그 의미가 심장(深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천시가 치켜들고 이 햇살이 더욱 빛을 내도록 저희 후손들도 한수재 할아버지의 유덕을 선양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정중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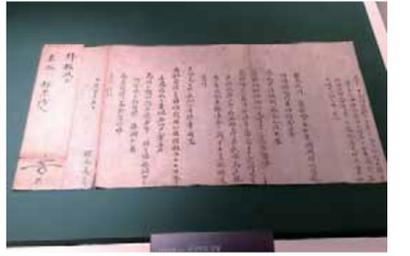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축사를 감응했다. 기념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의림지역사박물관 지하에 전시하고 있는 기획전시실을 둘러보았다. 전시실에는 한수재 권상하 선생의 초상화, 조카 옥소 권섭과 주고받은 간찰, 기호학과 학맥도, 화서학과 학맥도, 호락논쟁 학맥도, 1704년 대보단 설치에 대한 경연의 논의를 수록한 대보단사연설(大報壇事筵說), 송정황제어필 비례부동 탁본(崇禎皇帝御筆 非禮不動 拓本), 한수재집(寒水齋集), 교지, 한수재 권상하 제자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 초상화,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1681~1767) 초상화 등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기간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이다.

편집국장 권행안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친필 비례부동 탁본



한수재 권상하 간찰



대보단사연설

**45년 부동산 경험과 바탕으로 투자 상담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10년 후 돈버는 부동산은 어디?**

**은퇴자가 투자하면 안되는 부동산 5가지**

**임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상가투자법**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의 선택! 저점과 고점을 찾아라**

2020부동산경기전망과 시장흐름 예측

**대표 권기영(혁영)**

국·, 상가 전문 영등포구 부동산중개사무소

010. 9067. 1577

전화 : (02) 783 - 1577 FAX : 0505 - 991 - 1900

E-mail : mjr157@naver.com

서울시 영등포구 영인로 89-(인삼역)335출구2F

**시온 부부한의원**

— 정성과 친절로 모시겠습니다 —

**한방진료과목**

침구과 / 한방내과 / 한방소아과 /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재활의학과 / 사상체질의학과

**특수클리닉**

통증클리닉 / 비만클리닉 / 보약클리닉  
비염클리닉 / 아토피클리닉 / 화상클리닉  
봉침·약침 /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6시30분  
토요일 : 오전9시~오후2시  
일·공휴일 : 휴진  
점심시간 : 오후1~2시

원장 권 일·김미경 (안동권씨 북아공파 36대)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56길 15 동일상가 1층 (둔촌동역 4번출구에서 약 50m둔촌시장안쪽)  
Tel : 02-485-1075 (한방치료)